

중남미 주요국의 에너지자원 공급력 조사분석

정 규 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jgj1234@kee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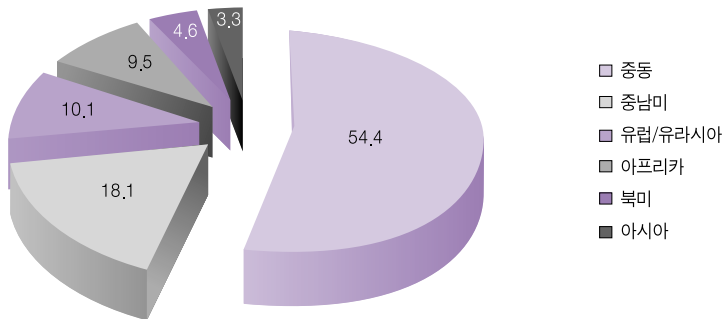
1. 서론

멕시코를 포함한¹⁾ 중남미 지역은 대륙에 속한 국가들과 카리브 해 도서 국가를 합하여 모두 3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남미 지역은 지난 10년 사이 에너지·자원분야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남미 지역의 석유 확인매장량은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 지역 개발, 브라질의 심해유전 개발이 확대되면서 세계 석유 확인매장량 가운데 중남미 지역의 확인매장량 비중이 2000년의 10.7%에서 2010년에는 18.1%로 크게 상승하여 중동지역 다음으로 많은 석유자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중남미 지역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세계 시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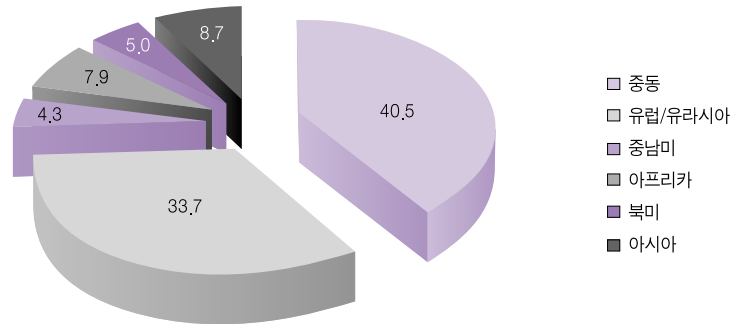
[그림 1] 전 세계 지역별 석유 확인매장량 비중(2010)²⁾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2011)

1) 멕시코는 일반적으로 중남미 국가로 인식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지역으로 분류하기도 함. 그 이유는 멕시코가 NAFTA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임. 본고에서 주요 통계자료를 참조한 BP Statistical Review에서도 멕시코를 북미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2) BP(2011)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재산정하였음. BP 통계에서는 멕시코를 북미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멕시코를 제외하면 중남미 비중은 17.3%로 다소 낮아짐.

[그림 2] 전 세계 지역별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비중(2010)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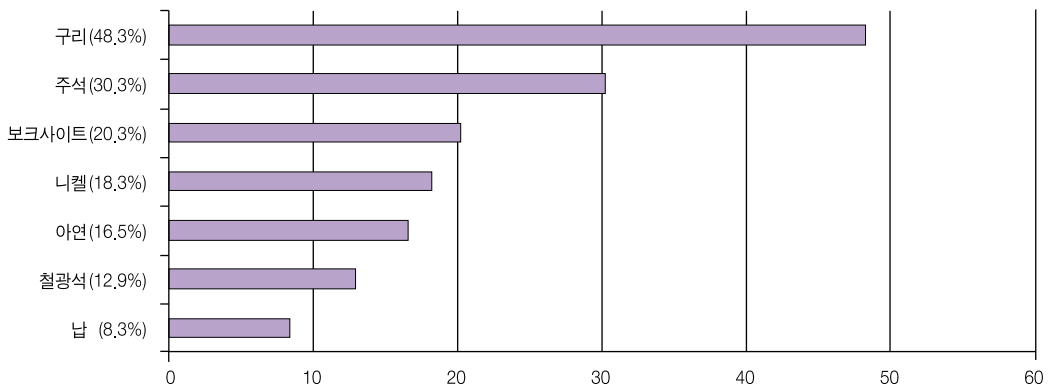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2011)

서의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꾸준한 탐사개발로 확인 매장량 비중이 2000년의 5.0%(확인매장량 7.7 tcm)에서 2010년에 5.3%(확인매장량 7.9 tcm)로 다소 증가하였다.

중남미지역이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지역이

광물자원의 보고라는데 있다. 광물자원 세계 비중이 일반광물인 구리가 48.3%, 주석이 30.3%, 보크사이트가 20.3%, 철광석이 12.9%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희유금속인 니오븀이 98.4%, 리튬이 85.8%, 탄탈이 59.1%를 점유하는 등 중남미 지역은 세계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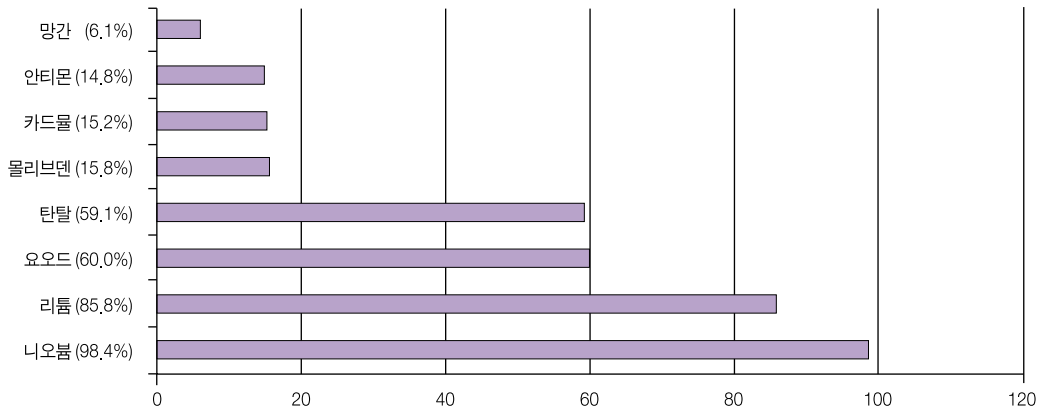
[그림 3] 중남미 주요 광물 부존 현황(2010년 기준)



자료: USGS(www.usgs.gov)

3) BP(2011)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재산정하였음. 멕시코를 제외하면 중남미지역의 비중은 4.0%로 다소 낮아짐.

[그림 4] 중남미 희유광물 부존 현황(2010년 기준)



자료: USGS(www.usgs.gov)

대의 광물자원 보유지역이다. 희유금속은 전자정보산업, 광산업 등 첨단 하이테크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원료로 우리나라는 희유금속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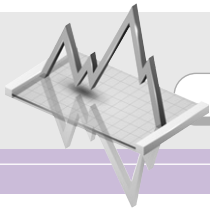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너지·자원의 보고인 중남미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중심지로 부각되어 많은 에너지·자원 관련 기업이 치열하게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지역 에너지·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대의 석유·가스분야 투자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남미 지역은 아직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정착되지 못하여 기업이 진출하여 활동을 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많은 난관들이 있다. 중남미 지역은 최근 좌파정권의 확대, 그리고 그에 따른 자원민족주의의 확산으로 향후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는 여전히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며, 많은 국가에서는 부정부패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2. 중남미 지역의 에너지자원 공급력 전망

가. 석유 공급력 전망

1) 석유생산 전망

BMI의 중기전망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의 OPEC 국가까지 포함한 중남미 전 지역의 석유 공급력은 2009년 9,969천 b/d에서 2015년에 12,523천 b/d 수준으로 증가하여 25.6%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국별로 보면 베네수엘라가 26.3%, 콜롬비아가 79.9%, 볼리비아가 26.9%, 페루가 106.5%의 생산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아르헨티나는 8.4%, 칠레가 47.2%, 멕시코가 7.5%, 에콰도르가 0.4%의 생산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결과 중남미 지역 전체로는 27.25%의 생산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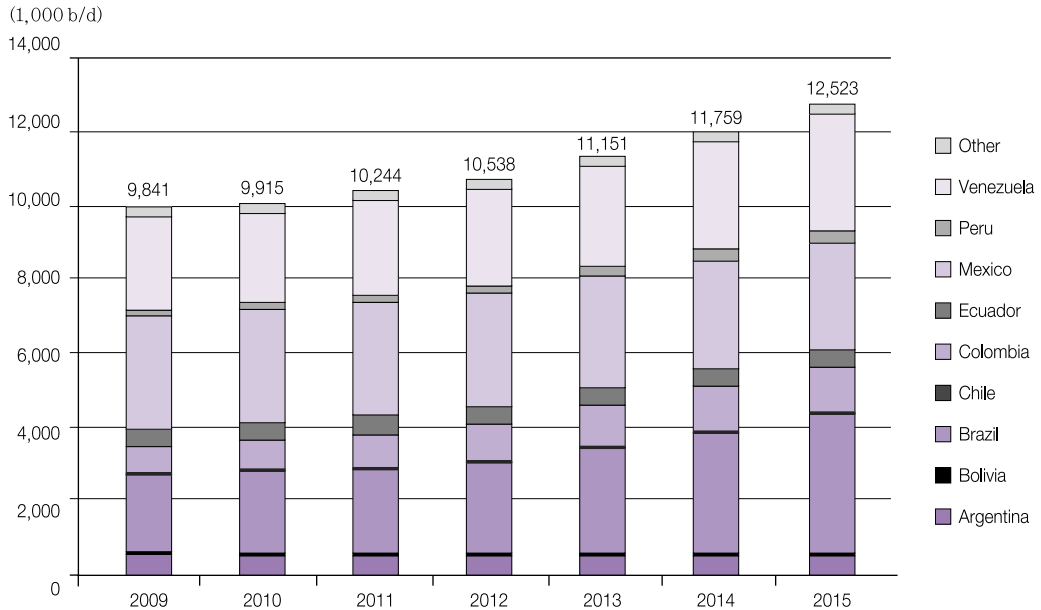
〈표 1〉 중남미 석유생산 전망

(단위: 천b/d)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Argentina	779.9	748.6	733.7	725.0	743.5	728.6	714.1
Bolivia	45.7	52.4	56.0	57.0	60.0	59.0	58.0
Brazil	2,029	2,137.4	2,188.2	2,366.2	2,733.7	3,137.2	3,652.2
Chile	10.8	9.0	8.7	9.0	7.3	6.4	5.7
Colombia	677.9	792.6	912.9	982.2	1,110.7	1,189.9	1,219.5
Ecuador	487.0	487.3	502.0	515.0	500.0	495.0	485.0
Mexico	2,971.6	2,953.0	2,954.1	2,921.7	2,871.3	2,821.8	2,749.2
Peru	145.3	157.2	160.0	180.0	240.0	285.0	300.0
Venezuela	2,454.8	2,341.5	2,495.0	2,555.0	2,650.0	2,800.0	3,100.0
Other	239.3	235.4	233.0	233.0	234.0	236.0	239.0
Total	9,841.0	9,915.0	10,244.0	10,538.0	11,151.0	11,759.0	12,523.0

자료: BMI(2011)

[그림 5] 중남미 석유생산 전망(2009~2015)





〈표 2〉 중남미 석유소비 전망(2009~2015)

(단위: 천b/d)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Argentina	580.0	618.0	642.7	662.0	681.9	702.3	716.4
Bolivia	60.0	62.0	63.2	64.5	65.8	67.1	68.4
Brazil	2,522.0	2,654.0	2,366.2	2,783.8	2,867.4	3,042.0	3,118.0
Chile	297.6	302.0	314.2	323.6	326.9	330.0	332.8
Colombia	288.0	279.0	296.0	300.4	325.7	323.5	331.6
Ecuador	186.0	192.0	201.1	219.5	228.3	237.4	246.9
Mexico	2,084.2	2,140.5	2194	2,248.9	2,293.8	2,328.2	2,351.5
Peru	181.0	189.0	195.6	201.5	207.5	213.5	218.0
Venezuela	723.0	746.1	753.7	761.2	768.9	776.7	781.5
Other	1,221.6	1,223.7	1,236.9	1,250.2	1,264.5	1,272.9	1,281.4
Total	8,140.4	8,432.5	8,694.6	8,906.7	9,106.6	9,293.9	9,4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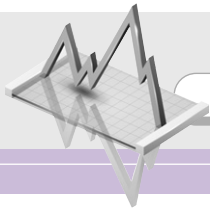
자료: BMI(2011)

〈표 3〉 중남미 석유수출 가능량 추이(2009~2015)

(단위: 천b/d)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Argentina	199.9	130.6	91.0	63.0	61.6	26.3	-2.3
Bolivia	-14.3	-9.6	-7.2	-7.5	-5.8	-8.1	-10.4
Brazil	-493	-516.6	-178	-417.6	-133.7	95.2	534.2
Chile	-286.8	-293	-305.5	-314.6	-319.6	-323.6	-327.1
Colombia	389.9	513.6	616.9	681.8	785	866.4	887.9
Ecuador	301	295.3	300.9	295.5	271.7	257.6	238.1
Mexico	887.4	812.5	760.1	672.8	577.5	493.6	397.7
Peru	-35.7	-31.8	-35.6	-21.5	32.5	71.5	82.0
Venezuela	1,731.8	1,595.4	1,741.3	1,793.8	1,881.1	2,023.3	2,318.5
Other	-982.3	-988.3	-1,003.9	-1,017.2	-1,030.5	-1,036.9	-1,042.4
Total	1,700.6	1,482.5	1,549.4	1,631.3	2,044.4	2,465.1	3,073.4

주: 석유생산 및 소비 전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 석유소비 전망

한편 중남미 지역의 석유소비는 2009년 8,140.4천 b/d에서 2015년에 9,499.6천 b/d 수준으로 증가하여 16.1%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브라질이 23.6%, 아르헨티나가 23.5%, 콜롬비아가 15.1%, 멕시코가 12.8%, 페루가 20.4%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석유수출 가능량 전망

석유생산과 석유소비의 차이를 수출가능량이라 정의했을 때 중남미 지역의 석유 수출가능량은 2009년 1,700.6천 b/d 수준에서 2015년에는 80.7%가 증가한 3,073.4천 b/d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남미 지역의 새로운 공급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콜롬비아가 127.7%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며, 전통적인 석유수출국인 베네수엘라가 33.9%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2015년에 순수입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브라질은 2014년부터, 페루는 2013년부터 순수출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볼리비아, 칠레는 계속 순수입국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칠레의 수입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볼리비아는 석유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나. 천연가스 공급력 전망

1) 천연가스 생산 전망

〈표 4〉 중남미 천연가스 생산 전망(2009~2015)

(단위: bcm)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Argentina	41.4	40.1	39.0	38.0	37.5	38.0	38.0
Bolivia	12.6	14.7	15.3	15.5	16.0	16.7	17.0
Brazil	10.3	12.6	16.6	19.1	19.6	20.6	22.6
Chile	1.4	1.1	0.8	0.9	0.9	0.8	0.8
Colombia	10.5	10.5	11.0	11.0	11.0	11.5	12.0
Ecuador	0.3	0.4	0.5	0.7	0.8	0.8	0.8
Mexico	50.2	52.0	52.4	52.9	53.3	53.8	54.2
Peru	3.5	7.5	9.2	10.0	11.0	11.5	12.0
Venezuela	18.4	22.9	24.0	25.0	26.5	28.0	33.0
Trinidad	40.6	42.4	42.1	43.5	44.2	45.0	47.0
Total	189.1	204.1	211	216.6	220.8	226.7	237.4

자료: BMI(2011)



중남미 지역의 천연가스 생산은 2009년 189.1 bcm에서 2015년에는 237.4 bcm으로 25.5%의 생산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생산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미미하지만 생산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전통적인 천연가스 생산국인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15.8%의 증가율을, 볼리비아는 34.9%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 반면 최근 카미세아 가스전 개발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천연가스 생산에 돌입한 페루는 242.8%의 급격한 생산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천연가스 생산 전망

중남미 지역의 천연가스 소비는 2009년 182 bcm에서

2015년에 247 bcm으로 증가하여 35.8%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남미 주요국 가운데 특히 브라질의 경우 천연가스 소비가 2015년에 37.3 bcm으로 전망되어 2009년 대비 99.5%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중남미 최대 천연가스 소비국인 멕시코가 22.7%, 아르헨티나가 20.4%, 베네수엘라가 53.5%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등 아직 천연가스 소비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국가들도 점차 가스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석유수출 가능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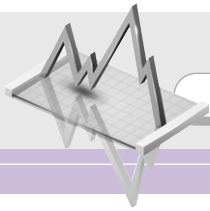
이 같은 중남미 지역의 천연가스 생산과 소비 전망을 살펴볼 때 이 지역의 천연가스 수출가능량은 급격히 감소하여 2013년부터는 천연가스 순수입 지역으로

〈표 5〉 중남미 천연가스 소비 전망(2009~2015)

(단위: bcm)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Argentina	43.1	43.5	44.3	46.1	48.0	49.9	51.9
Bolivia	2.8	3.0	3.1	3.2	3.4	3.5	3.6
Brazil	18.7	25.1	28.9	31.0	33.2	35.2	37.3
Chile	2.8	4.3	4.7	5.2	5.7	6.2	6.9
Colombia	8.7	9.0	9.3	9.5	9.8	10.1	10.4
Ecuador	0.3	0.4	0.5	0.7	0.8	0.8	0.8
Mexico	60.9	62.4	63.3	64.2	66.8	69.5	74.7
Peru	3.5	4.0	4.2	4.5	5.0	5.5	6.0
Venezuela	20.2	25.1	26.3	27.5	28.6	29.8	31.0
Trinidad	20.9	22.0	22.3	22.7	23.3	23.9	24.6
Total	182.0	198.6	206.9	214.6	224.5	234.3	247.2

자료: BMI(2011)



〈표 6〉 중남미 천연가스 수출가능량 추이(2009~2015)

(단위: bcm)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Argentina	-1.7	-3.4	-5.3	-8.1	-10.5	-11.9	-13.9
Bolivia	9.8	11.7	12.2	12.3	12.6	13.2	13.4
Brazil	-8.4	-12.5	-12.3	-11.9	-13.6	-14.6	-14.7
Chile	-1.4	-3.2	-3.9	-4.3	-4.8	-5.4	-6.1
Colombia	1.8	1.5	1.7	1.5	1.2	1.4	1.6
Ecuador	0.0	0.0	0.0	0.0	0.0	0.0	0.0
Mexico	-10.7	-10.4	-10.9	-11.3	-13.5	-15.7	-20.5
Peru	0.0	3.5	5.0	5.5	6.0	6.0	6.0
Venezuela	-1.8	-2.2	-2.3	-2.5	-2.1	-1.8	2.0
Trinidad	19.7	20.4	19.8	20.8	20.9	21.1	22.4
Total	7.1	5.5	4.1	2.0	-3.7	-7.6	-9.8

주: 석유생산 및 소비 전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천연가스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2015년부터 순수출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다. 광물자원 공급력 전망

1) 일반광물 공급력 전망

세계 최대 철광석 공급국가로 손꼽히는 브라질의

철광석 생산이 2011년에 연간 3억 8천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4년간 연평균 10.6%씩 빠르게 확대되면서 2015년에는 생산량이 5억 6,8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⁴⁾

동 기간 동안 세계 철광석 생산량이 연평균 6.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데 비해 브라질의 연평균 철광석 생산 증가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브라질 광업협회(IBRM)는 2015년까지 현재의 철광석 생산을 두 배로, 구리 생산을 세 배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의 니켈 생산은 Barro Alto 광산을 중심으로 올해 3만 9천 톤 증가한 이후 향후 4년간 42

4) J.P Morgan, "Iron Ore," 2011.7.22



〈표 7〉 세계 철광석 생산 전망

(단위: 백만 톤)

지 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북미	81	86	96	101	104	108
브라질	364	380	402	442	486	568
기타 중남미	32	33	34	34	35	35
유럽	31	35	38	43	44	44
CIS	190	197	204	204	205	206
아프리카	70	74	89	108	131	163
아시아	631	653	664	681	672	663
오세아니아	457	488	534	590	670	738
세계전체	1,857	1,947	2,060	2,203	2,346	2,524

자료: J.P. Morgan

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⁵⁾

톤의 생산량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⁶⁾

구리 생산의 경우, 2011부터 2015년까지 브라질은 65만 톤을, 멕시코는 90만 4천 톤을, 페루는 150만

아연의 경우 2011부터 2015년까지 멕시코가 58만 톤을, 페루는 52만 6천 톤의 생산량 증가를 기록할

〈표 8〉 브라질 니켈 생산 전망

(단위: 천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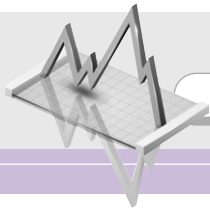
광 산	2011	2012	2013	2014	2015
Mirabela Nickel	6	12	14	15	17
Onca Puma	6	28	46	52	56
Niquelandia		6	9	10	11
Barro Alto	27	36	36	36	36
브라질 전체	39	82	105	113	120

주: 수치는 전년대비 생산 증가량

자료: RBC Capital Markets, "Metal Prospects, Nickel Market outlook," 2011.6

5) RBC Capital Markets, "Metal Prospects, Nickel Market outlook," 2011.6

6) RBC Capital Markets, "Metal Prospects, Copper Market outlook," 2011.6



<표 9> 구리 생산 전망

(단위: 천톤)

국 가	광산	2011	2012	2013	2014	2015
브라질	Salobo	50	100	100	200	200
멕시코	Tayahua				35	75
	Boleo			30	54	60
페루	Antamina	49	59	59	59	59
	Antapaccay		10	100	160	160
	Conga				16	89
	Las Bambas				210	400
	Tintaya					70

주: 수치는 전년대비 생산 증가량

자료: RBC Capital Markets, "Metal Prospects, Copper Market outlook," 2011.6

<표 10> 아연 생산 전망

(단위: 천톤)

국 가	광산	2011	2012	2013	2014	2015
멕시코	Penasquito	110	120	110	125	115
페루	Iscaycruz	53	53	53	53	53
	Milpo	44	40	37	70	70

주: 수치는 전년대비 생산 증가량

자료: RBC Capital Markets, "Metal Prospects, Zinc Market outlook," 2011.6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⁷⁾

2) 희소광물 공급력 전망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산업의 확대에 인
해 희소 광물에 대한 수요는 과거 추세보다 더욱 빠
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⁸⁾ 희소광물의 가
격은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상승 추세를 나타낼 전망
이며 일부 국가에게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희소금속

7) RBC Capital Markets, "Metal Prospects, Zinc Market outlook," 2011.6

8) 선진국과 중국 등 주요 개도국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자동차 등 녹색산업의 부품(모터, 전지 전극 등)에 주요 재료로 쓰이는 희소금속의 수요 역시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이광우, "떠오르는 녹색자원에 주목하자," 2010.2).



〈표 11〉 몰리브덴 생산 전망

(단위: 천톤)

국 가	광산	2011	2012	2013	2014	2015
멕시코	Cananea		4	9	9	9
페루	Quellaveco				4	5
	Antamina	8	14	14	14	14
	Galeno			5	10	10
	Las Chancas				6	11
	Magistral					2

주: 수치는 전년대비 생산 증가량

자료: RBC Capital Markets, "Metal Prospects, Molybdenum Market outlook," 2011.6

과 희토류 등은 일반 광물과 비교하여 더 빠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미의 희소금속 생산도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몰리브덴의 경우 2011부터 2015년까지 멕시코는 3만 1천 톤을, 페루는 11만 7천 톤의 생산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⁹⁾

3. 중남미 주요국의 에너지자원개발 투자 환경 분석

가. 멕시코

1) 경제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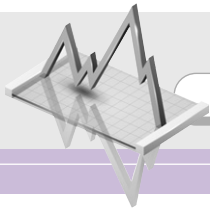
인구가 약 1억 1천만 명인 멕시코는 일인당 GDP가 \$9,242이지만 소득격차가 크고 국민의 다수가 빈곤층이어서 내수시장의 구매력은 그리 크지 않다. 반면 멕시코는 NAFTA, EU, 이스라엘, 중남미 G3국가, 일본 등 전 세계 45개국과 13개 FTA를 맺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스페인, 독일, 아르헨티나 등 27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갖고 있다.¹⁰⁾

한편, 멕시코는 견실한 경제정책과 중앙은행의 효과적인 정책집행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있어 향후 10년간 FDI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¹¹⁾ 반면 멕시코는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등 자유무역 기조를 강화함으로써 미국 시장에서의 의존도를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미국의 경기변동에 민

9) RBC Capital Markets, "Metal Prospects, Molybdenum Market outlook," 2011.6

10) KOTRA 멕시코 무역관

11) BMI(2011)



<표 12> 멕시코의 경제 환경 SWOT

Strengths(S)	Weaknesses(W)
• NAFTA 회원국 간 유대강화로 미국시장 진출에 유리 • 세계 45개국과 FTA체결로 무역 및 투자활성화 기반	•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미국 경기변동에 민감 • 지속적 원유생산 감소 예상 • 재정수입의 에너지판매 의존도가 높아 재정악화 우려
Opportunities(O)	Threats(T)
• 건실한 경제정책과 중앙은행의 효과적 정책집행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여건 구축 • 향후 10년간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속적 증가 예상	•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 미국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및 세계적인 부채감소 흐름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 예상

감하게 반응하는 약점이 있으며, 석유·가스 등 에너지의 생산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에너지에 의존하는 높은 재정 의존도는 멕시코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외국인 투자유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 사업 환경

멕시코는 북미 및 중남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많은 외국기업이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추세에 있으며,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 신흥시장인 중남미 시장에 인접하고 있어 일반 기업에게는 사업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에너지·자원분야에서는 그리 좋은 환경이라 할 수는 없다.

멕시코는 에너지개혁법을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량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에너지

지개혁법의 핵심은 멕시코 국영석유회사였던 PEMEX의 민영화에 있다. 멕시코 정부는 PEMEX의 민영화를 통해 외국 자본의 유치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석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개발 사업은 “외국인 및 국내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불허하는 멕시코 정부 관련 활동”으로 외국인 투자법에 규정하고 있어 외국 기업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PEMEX와의 다중서비스계약(Multiple Service Contracts)을 통하여 비수반 천연가스 개발과 생산에만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멕시코는 입찰조건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기업에 우선권을 주고 있어 그렇지 못한 국가의 기업이 멕시코에 진출하는 데 큰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 또한 멕시코 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¹²⁾

12) KOTRA 멕시코 무역관



〈표 13〉 멕시코의 사업 환경 SWOT

Strengths(S)	Weaknesses(W)
• 정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 에너지개혁법 도입으로 에너지분야 사업 환경 개선	•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낮아 숙련인력 확보 어려움 • 노동시장의 규제과다 및 강성노조로 고용의 유연성이 극히 낮음
Opportunities(O)	Threats(T)
• 석유가스 분야 인센티브서비스 계약방식 도입 • 입찰시 신속성 및 투명성 제고	• 에너지개혁 부진으로 원유생산 감소 전망 • 범죄율증가로 국민 불안 심화 예상 • FTA 체결국가의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참여가 제한적

나. 브라질

1) 경제적 환경

브라질은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07년부터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재정의 건전성이 높아졌으며, 중앙은행의 정책집행 일관성도 제고되어 장기적인 투자결정에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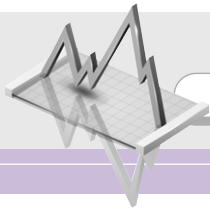
한편 정부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추진으로 정부재정의 균형적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1999년 브라질 금융위기 당시 시행했던 포퓰리즘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향수가 남아있어 정부의 균형재정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브라질의 높은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고용주들이 신규인력 고용에 주저하고 있어 브라질 경제성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S&P에서 발표한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은 2010년 1월 기준 BBB-에서 2011년 8월 기준 BBB로 한 단계 상승하였다. 이는 외국자본의 대 브라질 투자를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 정부가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외국자본에 대하여 많은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 경제의 가장 큰 위기요인은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브라질 경제도 함께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기적으로 내수수요보다 수출수요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¹³⁾ 또 다른 요인은 복잡한 조세체계를 개혁하고자 전임 룰라 정부부터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조세체계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도 브라질 경제의 위기요인

13) BMI(2011)



〈표 14〉 브라질의 정치 환경 SWOT

Strengths(S)	Weaknesses(W)
•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 • 중앙은행의 정책 일관성으로 투자자 신뢰도 상승	•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계획으로 균형재정 유지 우려 • 노동시장의 경직성
Opportunities(O)	Threats(T)
• 국가신인도 상승으로 안정적 투자환경 유지 •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추진으로 투자기회 확대	• 세계경제에 대한 의존도 상승으로 국제경기 변동에 민감 • 세제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이 아직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함

가운데 하나인데 신임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브라질 경제의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2) 사업 환경

브라질은 석유, 천연가스, 광물 등과 함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도 갖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사업기회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석유정보 분석기관인 IHS는 브라질을 중남미 산유국 가운데 국가위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비록 최근 브라질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중남미 최대 경제대국으로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 또한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기업환경을 만들어 내었다.

반면에 브라질의 기업환경 가운데 가장 취약점은

〈표 15〉 브라질의 사업 환경 SWOT

Strengths(S)	Weaknesses(W)
•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기반으로 많은 사업기회 제공	• 비관세 무역장벽, 복잡한 조세, 관세 체계가 비즈니스 리스크 강화 • 높은 금리, 인프라 부족, 양질의 노동력 부족
Opportunities(O)	Threats(T)
• 잇따른 육상 및 해상유전 발견으로 다양한 범위의 투자 기회 확대 • 바이오연료,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기회 확대	• 세제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이 아직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함 •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강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악영향



너무나 복잡한 조세 및 관세제도, 그리고 심각한 비관세 무역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비즈니스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대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고, 브라질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커져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 베네수엘라

1) 경제적 환경

베네수엘라는 2005년, 2006년 고유가로 인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었으나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발생이후 2009년과 2010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베네수엘라 경제가 석유 판매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2011년 상반기에는 고유가 상황이 다시 나타나면

서 정부지출 확대 및 통신업과 금융업 활황으로 3.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¹⁴⁾ 한편 2011년도 베네수엘라의 경제성장률을 IMF는 2.8%, 크레디스위스는 3%를 전망하는 반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⁵⁾

베네수엘라는 경제 전반에 걸친 석유의존도가 높아 2010년 전체 수출액의 95%가 석유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재정수입의 60% 이상이 석유부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한편 2011년에는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으로 베네수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2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베네수엘라 경제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⁶⁾

S&P는 2011년 8월 베네수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2010년의 BB-에서 B+로 하향 조정하였다. 강등 이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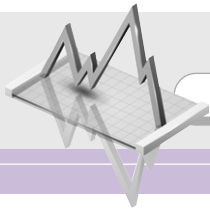
〈표 16〉 베네수엘라의 경제 환경 SWOT

Strengths(S)	Weaknesses(W)
• 풍부한 에너지자원 • 국제유가의 상승 전망	• 경제 전반에 걸친 높은 석유의존도 • 높은 인플레이션 및 복잡한 환율체계
Opportunities(O)	Threats(T)
• 정권의 높은 국정장악력으로 정부 간 협의를 통한 협력 확대 가능성	• 국가신인도 하락 •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

14)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15) KOTRA 베네수엘라 무역관

16) 2011년 8월 기준으로 베네수엘라 원유의 평균가격은 98.7달러를 기록하였음. 한편 2012년 국제유가 전만과 관련하여 주요 국제투자은행들은 브렌트유 기준으로 100달러~115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골드만삭스는 125달러로 가장 높게 전망하였으며 모건스탠리와 소시에테제네랄레는 100달러로 전망하고 있음.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e, Issue Analysis, 2011.11.18



S&P는 베네수엘라의 잦은 법률 개정과 정치적 리스크가 시장왜곡 및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을 들고 있다.

2) 사업 환경

베네수엘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 추진, 오리노코 오일벨트 등 개발가능성이 큰 풍부한 에너지자원 등 외국 자본의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투자 대상지이다. 그러나 정치 불안, 잦은 정책변경에 따른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양질의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복잡하고 고용자에게 불리한 노동 관련법 그리고 극심한 빈부격차 등이 외국 기업의 투자활동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1992년 대통령령으로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며 외국계 기업의 등록과정을 단순화하였다. 외국인 투자자가 베네수엘라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청에 등록만하

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언론 및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전문 업종에는 외국인 투자지분을 20%로 제한하며, 그 외의 업종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1999년 개정된 헌법에서는 에너지자원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의 경우 외국업체에 대하여 단독 개발권을 부여하던 개발양허제가 금지되었다.¹⁷⁾ 특히 2006년 베네수엘라는 석유부문 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외국 자본과 합작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 지분의 60% 이상을 최장 20년 동안 PDVSA가 소유하도록 하여 석유주권을 확립한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조치는 2006년 전반적인 천연자원의 국유화 이후 이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권 확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며, 정부의 의지에 따라 국유화 할 때에 보상 부담을 덜어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라. 콜롬비아

1) 경제적 환경

〈표 17〉 베네수엘라의 사업 환경 SWOT

Strengths(S)	Weaknesses(W)
•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 • 미개발된 풍부한 에너지자원	• 경제 전반에 걸친 높은 석유의존도 • 높은 인플레이션 및 복잡한 환율체계
Opportunities(O)	Threats(T)
• 정권의 높은 국정장악력으로 정부 간 협의를 통한 협력 확대 가능성	• 국가 정책의 불확실성 확대 • 자원민족주의

17) KOTRA 베네수엘라 무역관



콜롬비아는 2010년 4.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비록 2009년에는 0.4% 성장에 그쳤지만 중남미 주요국 대부분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콜롬비아의 경제 기반이 상당히 견전해졌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전임 정권부터 지속된 국내 치안확보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어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이루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구매력 상승과 고용률 상승을 이루어내었다. 또한 매우 높았던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안정되었으며, 정부부채 문제도 점차 해소되어 적자예산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콜롬비아 경제의 대미, 대베네수엘라 의존도가 높은 것은 콜롬비아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정치권의 부패문제가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외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외채는 상환기간이 다가옴으로써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2) 사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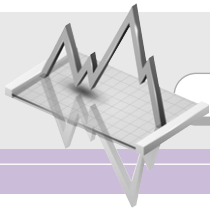
콜롬비아 중앙은행이 2011년 9월 발표한 2009년

도 콜롬비아의 FDI는 총 72억불이었다. 이는 2008년도의 FDI 총액 106억불에 비하여 32.1%가 감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9년도 FDI의 구성을 보면 석유 분야가 총 FDI의 31%였으며, 광업부문이 27%의 구성비를 보여 에너지자원부문이 전체 FDI의 58%를 차지하였다. 2010년도 FDI는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지만 콜롬비아의 경기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외국인 투자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가 많은 것은 콜롬비아의 국내 치안이 안정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졌으며, 정부가 석유부문의 외자 유치를 위해 장기 탐사권을 보장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콜롬비아 정부의 관료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여전히 높은 비관세 장벽이 남아 있어 외국자본 유입 확대를 저해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전이 발견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석유수입국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¹⁸⁾

향후 콜롬비아는 반군 퇴치 노력, 석유산업부문 개혁 등 석유개발 투자환경 개선으로 남미의 유망 산유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치안 상황 개선,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최근 2~3년 동안 원유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

〈표 18〉 콜롬비아의 경제 환경 SWOT

Strengths(S)	Weaknesses(W)
• IMF 및 신용평가기관의 긍정적 평가 • 예산적자 폭의 현저한 개선	• 미국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높은 의존도 • 부패퇴치 등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
Opportunities(O)	Threats(T)
•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는 외부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중앙은행이 투자환경을 현저히 개선	• 외채가 증가하고, 일부는 상환일정이 임박하여 정부의 재정상황 악화



<표 19> 콜롬비아의 사업 환경 SWOT

Strengths(S)	Weaknesses(W)
• 국내 치안 안정으로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 •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 항구를 통한 대외 교역 가능	• 관료화 심화와 높은 비관세 장벽 • 새로운 유전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석유수입국 전환 가능성
Opportunities(O)	Threats(T)
• 정부가 석유부문 외자유치를 위해 장기 탐사권을 보장하는 등 노력 • 미국의 호혜무역법 개정에 따라 콜롬비아의 대미 수출 청신호	• 외국인에 대한 치안불안 • 반군 테러의 위험 상존

며, 캐나다 독립계 등 외국 석유사의 참여 증대, 국영 Ecopetrol사의 투자 확대 등으로 향후 원유 생산 증대 전망도 낙관적이다.

결론적으로 치안 상황이 개선될 경우 주요 대형 산유국의 자원 통제 강화 움직임으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질학적 유망성도 높고 비교적 안정적인 석유개발 투자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콜롬비아의 투자가치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볼리비아

1) 경제적 환경

볼리비아는 최근 5년간 평균 4%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인플레이도 2009년을 기점으로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자

원부문을 제외하고는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수출이 에너지자원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볼리비아는 에너지와 광물을 포함한 광업부문의 수출액이 국가 전체 수출액의 90%를 담당하고 있으며, 천연가스가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수출품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다. 노동조합은 역대 정권과 잦은 충돌을 일으켜 왔는데 그 가운데 주석광업분야의 노동조합이 조직력이 특히 뛰어나며, 각 업종별 노동조합은 센트럴 오브레라 볼리비아나(COB)라는 상위조직에 참여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1990년대 후반 에너지부문 민영화와 개방으로 투자가 늘어나면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3년 로사다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민족주의 경향으로 바뀌면서 투자가 위축되었다. 그 영향으로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규모의 탐사개발 투

18) BMI(2011)



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시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2010년 YPFB는 “보호구역” 개발을 위해 프랑스 Total, 러시아 Gazprom 등과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호구역은 2005년과 2007년에 YPFB에 부여된 각각 24개, 36개 광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10년간 YPFB가 단독으로 개발하거나 양자 간 에너지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자격있는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합작회사의 경우 YPFB가 51%의 지분을 갖도록 하여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보호구역은 개발환경이 열악하고, 지질학적 유망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⁹⁾

볼리비아는 모랄레스 집권 이후 석유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가를 배럴당 \$27.1로 동결하고 이에 해당하는 석유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0년의 연료 국가보조율이 65%에 이르렀으며, 2011년의 경우 500백만 달러 이상의 지출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보조금 정책은 석유부문의 이윤율을 저하시켜 이 부

문의 투자 부진을 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인접 국가로의 석유 밀수가 성행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볼리비아 정부는 밀수를 막기 위해 2010년12월 석유가격 73%, 경유 88%의 기습인상을 강행하였으나 전국적인 저항에 봉착하여 4일만에 철회하기도 하였다.²⁰⁾ 볼리비아 정부는 국내 연료생산을 확대하고 국가재정에 미칠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조금을 줄여가야 할 것이다.

2) 사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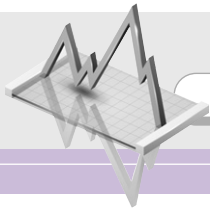
모랄레스 정권이 들어서면서 에너지자원부문의 국유화가 가속화 되어 모든 에너지자원의 소유권을 국가가 접수하였다. 외국자본이 석유·가스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영회사인 YPFB와 합작투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단독 사업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2005년 신탄화수소법의 제정에 따라 모든 외국기업은 생산물을 YPFB에 넘겨주어야 하는 operating contract로 전환하도록 하여 2006년

〈표 20〉 볼리비아의 경제 환경 SWOT

Strengths(S)	Weaknesses(W)
• 견실한 경제성장 • 천연가스 생산량 지속 확대	• 투자부진에 의한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축소 • 양질의 노동력 공급 부족
Opportunities(O)	Threats(T)
• 보호구역 개발을 위한 외국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 노동계와 정부와의 잦은 충돌 • 연료보조금에 의한 국가재정 부담 가중

19) 정우진 외(2010), pp. 73~74.

20) 외교통상부 주볼리비아 한국대사관



〈표 21〉 볼리비아의 사업 환경 SWOT

Strengths(S)	Weaknesses(W)
• 정부의 외자유치 노력 • 천연가스 생산량 지속 확대	• 강성 노동조합 • 천연가스 산업 발전 전망 불투명
Opportunities(O)	Threats(T)
• 볼리비아-아르헨티나 신규 가스관 건설계획 추진	• 정부의 자원민족주의 강화 등 정책 불안정

볼리비아 내 12개 운영권자들은 기존 69개의 risk-sharing contract를 44개의 operating contract로 변경한 바 있다.²¹⁾

볼리비아는 광업분야 투자환경도 매우 나빠 캐나다의 Fraser Institute가 49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종합 46위를 기록하였다.²²⁾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토지 이용 및 규제가 44위, 행정의 불확실성이 47위, 공무원 부패정도가 48위, 조세제도가 49위, 인프라 구축이 48위, 정보 접근성이 40위, 치안이 42위, 정책 불안정성이 46위를 기록하였다.

4. 결론

중남미 지역의 에너지자원 공급력은 중기적(2011~2015)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석유 공급은 중남미 전체적으로 2009년 9,841천 b/d 수준에서 2015년에 12,523천 b/d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며, 중남미 지역의 석유소비는 2009년 8,140천 b/d

수준에서 2015년에 9,450천 b/d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 지역의 수출가능량이 2009년 1,700천 b/d 수준에서 2015년에 3,073천 b/d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 중남미 전체로 볼 때 천연가스 생산량이 2009년의 189 bcm 수준에서 2015년에는 237 bcm 수준으로 증가하며, 역내 천연가스 소비가 2009년에 182 bcm 수준에서 2015년에 247 bcm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9년에 7.1 bcm 수준이었던 천연가스의 수출 가능량이 2013년부터 역내 공급량이 역내 소비량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외부에서 수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물자원의 경우 중남미 지역의 철광석 생산량이 2010년의 396백만 톤에서 2015년에 603백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세계 2위의 철광석 생산국인 브라질이 담당하여 2010년 364백만 톤에서 2015년에 568백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구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생산누적 증가량이 브라질은 64만 톤, 멕시코

21) 에너지산업해외진출협의회 중남미연구회(2009)

22) 외교통상부 해외에너지자원정보 포털

코는 90만 톤, 페루는 15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5년까지에 총 304만 톤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연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생산증가량이 멕시코가 58만 톤, 페루가 52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총 110만 톤의 생산 증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희소금속의 생산전망을 살펴보면, 몰리브덴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멕시코가 3만 1천 톤, 페루가 11만 7천 톤의 누적 생산 증가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총 14만 8천 톤의 생산량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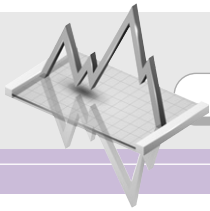
중남미 지역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정치적 불안정, 사회치안 악화, 자원민주주의의 확산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투자환경을 갖고 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상당한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적극적인 외국자본 유치 정책을 취하면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장애요인도 상당히 제거해 나가고 있어 투자환경이 이전보다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중남미 지역은 향후에도 국제 에너지자원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에너지자원 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이 지역에서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남미 지역 국가들에 대한 이원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등 상당수 중남미 지역 자원부국은 국제 경제입찰을 통하여 자원개발 라이선스를 발급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부의 영향력이 기대하는 만큼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추진에는 많은 제약 요건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부문이 이 지역에서의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정부 간 협정 체결 등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는 정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동반진출 전략을 바탕으로 양자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에너지자원 개발은 장기간의 투자 기간과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에너지자원 개발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맺은 중남미 국가들은 모두 15개국이지만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은 국가는 브라질, 멕시코, 칠레, 베네수엘라 등 4개국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투자보장협정을 맺은 나머지 국가들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너지자원 개발을 전통적인 석유·가스분야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특히 풍력, 태양광분야, 그리고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 신흥 에너지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연료 개발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미 브라질은 세계 2위의 바이오에탄올 생산국이며, 콜롬비아는 새로이 바이오연료분야의 주요한 생산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브라질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의 바이오연료 기업이 브라질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브라질개발은행(BNDES)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브라질과 콜롬비아는 밀럼 지역 또는 고산 지역



과 같은 고립 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위해 풍력 발전 및 태양광 발전을 활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기술적, 산업적 기반이 취약하여 아직 이 분야의 이용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의 한-중남미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브라질은 태양광 발전과 관련하여 아직 대학 연구소 등에 소규모 설비만 갖추고 있으며, 필요한 부품 및 설비를 유럽에서 수입함으로써 높은 가격 때문에 거의 보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필자가 출장 시 면담하였던 브라질개발은행 담당자는 우리나라의 태양광 산업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자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금융 및 정책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특히 브라질은 태양광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해 발전차액지원(FIT)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참고 문헌

〈국내 문헌〉

강운흠 · 박연주 · 이태하, 「태양전지」, 대우증권, 2007.4
——— · 김하성, 「태양패널」, 대우증권, 2010.4
윤순진,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환경 · 복지 · 고용의 연결: 에너지빈민을 위한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을 중심으로,” 「ECO」, 제10권 제2호, 2006
권기수, 「브라질의 광물 · 에너지자원 개발잠재력과 한국의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국제금융센터, “2012년 국제원유시장 주요 이슈 및 유가전망,” 「Issue Analysis」, 2011. 11. 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와 환경 문제」, 20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페루 대통령 선거 결과와 향후 경제정책 전망,” 「KIEP 지역경제 포커스」, Vol. 5, No. 30, 2011

에너지산업해외진출협의회 중남미연구회, 「해외자원 개발 중남미 진출전략-브라질, 칠레, 페루」, 2009

———, 「해외자원 개발 중남미 진출전략-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2010

이광우, “떠오르는 녹색자원에 주목하자,” 「LG 비즈니스인사이트」, 2010

정규재 외, 「한-중남미 석유가스 분야 협력사례 분석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 외교통상부, 2008

정우진 외, 「해외자원개발 전략 연구: 중남미 자원개발 진출 전략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조희문, “브라질 석유자원개발의 법률제도와 개정논의에 대한 소고,”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2 No.1, 2008

한국석유공사, 「페루 Country Report」, 2010

〈외국 문헌〉

ANH, Colombia: Oil and Future, 2009

Arditi Benjamin, *Arguments about the Left Turns in Latin America: A Post-Liberal Politics?*,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43, Number 3, 2008

BNDES, *Infrastructure and energy sustain investments in the 2009-2012 period*, Brazilian Economic Insights No. 69, 2009

BMI, Bolivia Oil and Gas Report-2011 Q4, 2011



- , Brazil Mining Report-2011 Q3, 2011
- , Colombia Oil and Gas Report-2011 Q1, 2011
- , Peru Oil and Gas Report-2011 Q1, 2011
- , Peru Mining Report-2011 Q4, 2011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1
- CIA, World Factbook, 2010
- ECLAC, 「Preliminary Overview of the Economies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9」, 2009
- EIA/DOE, Country analysis Briefs-Colombia, 2011
- Huskai, Roberto Y., Brazilian Decennial Expansion Plan, 2011
- IEA, Medium-Term Oil and Gas Markets, 2011
-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1(Special Report), 2011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1
- J.P Morgan, “Iron Ore,” 2011
-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e, Issue Analysis, 2011.11. 18
- Mares. David R., Resource Nationalism and Energy Security in Latin America: Implications for Global Oil Supplies, Baker Institute Scholar for Latin American Energy Studies Rice University, 2010
- Petrobras, Business Plan 2010~2014, 2009
- RBC Capital Markets, “Metal Prospects, Nickel Market outlook,” 2011
- , “Metal Prospects, Copper Market outlook,” 2011
- , “Metal Prospects, Zinc Market outlook,” 2011
- , “Metal Prospects, Molybdenum Market outlook,” 2011
- Singh, Priti, *The Politics of Energy Cooperation in Latin America*, International Studies, 46(4), 2009
- Swedish Trade Council in Argentina, “The mining and mining equipment industry, Peru,” 2011
- USGS, Minerals Year Book, 2019
- ,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1
- WBMS, World Metal Statistics Yearbook, 2010
- , World Metal Statistics Yearbook, 2011